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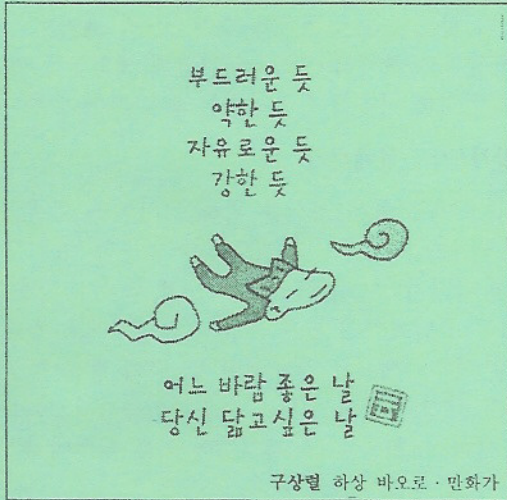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0주일  
제28권 38호(가해) 2008·8·17

## [묵상]



맹자(孟子)는 창조주를 몰랐어도  
사람의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선(善)하다는  
사단(四端)을 노래했다.  
인(仁)에서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의(義)에서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예(禮)에서 겸손히 타인을 공경하는 사양지심.  
지(智)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  
사람 본성에 이렇듯 좋은 사단의 마음씨가 있더니,  
이를 주신 조물주를 찬미하고 감사할 일이다.  
이는 곧 부드러운 듯 약한 마음씨며,  
자유로운 듯 강한 마음 씩씩이를 말하는 것일 게다.  
이는 곧 사람을 내신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이니,  
그분의 이름을 뒤집어쓰고 사는 우리가  
노력하여 닮아야 할 마음이다.  
“오늘도 당신 손으로 집을 지어주시고,  
허벅지개 상을 차려 우리를 초대하시니,  
당신 집을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내어주시옵소서.”(人)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평일 미사                        | 오후 7:30                        |
| 금요일 | 평일 미사                        | 오전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주일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 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종 강<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br>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 오후 6:00<br>오후 5:00<br>오후 8:30                                          |
| 주일  | 병자 영성체<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빈첸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br>요<br>특전미사 | (연)최효선 안젤라, 엄은섭 도로테오,<br>김현숙 마리아                                                                                                                                                   |
|                | (생)엄혜은 도로테아와 제니와 조이.                                                                                                                                                               |
| 주<br>일<br>낮 미사 | (연)정진표, 이현호 요한, 정윤봉 베드로, 김종윤,<br>정형두 바오로, 이은환 야고보, 김인영 베드로,<br>천서인 레지나, 박대수 나자로, 고준희 제임스,<br>변세연 대견안드레아, 엄은섭 도로테오                                                                  |
|                | (생)이금순 마리아, 이종민 요셉,<br>이정훈 안셀모와 회운 도미니카, 이유미,<br>이유진 대견안드레아, 이명순 아가다, 송정혜 가정,<br>장정숙 크리스티나, 엄크리스 벨라도, 오진 베드로,<br>이상현 베드로, 이종원 베드로,<br>윤남열 세라피나, 우영희 엘리사벳<br>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6,1,6-7

**화답송** ◎창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정의로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못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아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13-15.29-32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도다.◎

**복음** 마태오(Matthew) 15,21-28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나이다.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87        | 182     |
| 봉헌  | 257        | 264,197 |
| 성체  | 303        | 306,299 |
| 파견  | 218        | 211     |

## 16. 입문성사(1) : 세례성사, 견진성사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와 결합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견진성사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옹호하며 전파하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된다. '예비신자'도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가정과 학교, 직장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17. 입문성사(2) : 성체성사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 요즘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식이나 이웃의 생명을 구해 낸 이야기가 많다.

"사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1코린 11,23-29)

이렇게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를 완결한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견진성사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된 사람들은 성체성사로 온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다.

### ▶ 성체성사의 의미와 효과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 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 성체성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聖體]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음식이 나타내는 효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신다.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주님을 모시는 영성체로 주님께 대한 일치가 증대되며, 소죄를 용서받고, 대죄에서 보호받는다. 또한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확고하게 하여 준다. 성체성사는 언제나 교회의 공적 예배인 미사 중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사의 중심이고 정점이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얻어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된다. (◆계속 - CBCK 제공)

## 믿음으로 ♪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일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을 지닌다(에머슨).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티로와 시돈 지방은 현재 레바논의 항구 도시들이다.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부인’은 곧 그 지방 토박이 부인이란 뜻이고,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 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빵’은 구원을 뜻한다. ‘강아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 일컬었다(마태 7.6 참조).

이방인 부인은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구원의 조각이나마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청을 들어 주셨다. 민족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었다(이사 25.9 참조).

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데리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루카 5.20 참조).

현대의학은 사람을 약을 쓰거나 수술하는 대상으로 본다. 원인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보다 어떻게 그 증상을 없애는가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을 중요시해야 한다.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라 생을 걸고 뛰어들어가는 것이다”(안토니 블룸 주교).

부산의 한 본당에서 사목할 때 하루는 주일학교 선

생의 부인이 찾아와 물었다. “신부님, 요즘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물론이지요. 왜 그러세요?” “신부님도 아시는 우리 큰딸, 유치원에 다니는 레지나요. 왼쪽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안과에 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어 걱정이었는데요. 친절 어머니께 애가했더니...”

어머니는 “성당에 자주 데리고 다니면서 성수를 눈에 발라 줘라. 그러면 나을 게다” 하시더라. 대학을 졸업한 그는 “좀 짠 소금물인데 뭘!” 하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친절 엄마의 말에 힘든 일도 아니고 또 답답해서, 혹시나 하고 주일 미사만 오던 분이 딸을 데리고 평일 미사에도 자주 나와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어 딸의 눈에 발라 주고 그랬는데 보름이 지났단다. 아이가 눈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책도 잘 보고 해서 “이게 기적인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해 주며, 친절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아이를 돌보신 것 같다고 답을 했다.

믿음의 길이란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채 하느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다. 두드려 보고 건너가는 돌다리 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의 모습처럼...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자. 평화와 기쁨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믿음으로 ♪ (가톨릭성가 480번)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곤벤뚜알프란치스코회 관구장>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강정현<br>시몬      | 정미영<br>미카엘라   | 엄영숙<br>마리아   | 해설자   | 최지영<br>크리스티나   | 신덕례<br>대례사 | 최진수<br>에우세비오 |
| 제1독서자 | 김정은<br>젬마      | 김교복<br>레오     | 이민상<br>요한    | 제1독서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배제일<br>미카엘 | 이영석<br>크리스토폴 |
| 제2독서자 | 이성연<br>크리스티나   | 배영민<br>아나스타시아 | 권순길<br>체칠리아  | 제2독서자 | 이화영<br>잔다르크    | 황지영<br>안젤라 | 박희자<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남1.3반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1반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목요 예비자 교리반(성탄반) 모집 안내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환 영 식 : 오늘주일(17일) 11시 미사 중
- 교리일정 : 2008년 8월21일(목)~ 2009년 1월15일까지
- 세례식 : 2008년 12월24일 성탄전야
- 신 청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후 접수  
☎ (310)227-1230 서병교 라파엘(복음화분과위원장)

◆ 배론 청년회 피정지원 등 기금마련 팔빙수 판매

- 오늘주일(17일) 11시 낮미사 후 천교장
- 가격 : \$5 ☎ (310)508-2123 최태훈 아오스당 회장

◆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Healthy Family 소개 세미나

- 일시 : 오늘주일(17일) 오후 1시, 유아실
- 문의 : 박홍룡 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283-5879

◆ 유아세례(만5세까지) 신청받습니다.

- 세례식 : 8월30일(토) 오후 5시, 성당
- 대부 대모님께서 세례식에 필히 참석해주십시오.

◆ 난치병 개인상담 및 무료 시술

- 기간 : 8월 매주일 오전 8시30분~11시, 1층 회의실
- 담당 : 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 (310)800-3592
- 병종 : 반신마비된 분, 정신질환청소년, 치매치료 및 예방

◆ 엄은섭 도로테오 님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8월16일(토) 장례미사를 드리고 홀리크로스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감사합니다. ☎

고 변세연 대건안드레아의 장례와 저희 모녀를 위해 사랑의 기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우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변율리아나, 안젤라 올림.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접수날짜 : 오늘주일(20일)~9월7일(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 이번 학기부터는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 310-780-0369 강아네스 교장

◆ 한국학교 1학기 등록

- 접수날짜 : 오늘주일(17일)~9월7일(매주일 미사 전후)
- 대 상 : 프리스쿨, 유치부(K)~12학년까지,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100)
- 등록비 :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 St. Margaret Mary 본당 연례 로미타 축제

- 9월5일(금)~7일(주일).
- St. Margaret Mary 주소(25511 Eshelman Av.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Live Entertainment & 맥주 코너
- Raffle 티켓 판매: 1장당 \$1(1등 \$10,000 & more)
- 모든 수익금은 본당 사목과 St. M.M. 학교기금으로 이용됩니다. 많은 교우들의 호응을 바랍니다.
- 문의 : 김철민 요한 ☎ (310)740-1502

◆ 남가주 한인 M.E. 제62차 주말 참가자 모집

- 일시 : 9월5일(금)~7일(주일), 요셉마리아 피정센터(P.V.)
- 참가비 : \$300(\$100은 M.E.기금으로 지원)
- 백삼위 M.E.대표부부(신임): 최상만 사비노 & 양숙 안젤라  
☎ (310)540-9230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17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콩나물밥 \$3)
- 8월24일(주일) : P.V. 2반 (불고기덮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강태홍          | 구자운  | 국세찬  | 김교복 | 김 욱 | 김원모 |
|-------------------|--------------|------|------|-----|-----|-----|
|                   | 김일선          | 김정엽  | 김정희  | 문두현 | 민소예 | 박선희 |
|                   | 박인식          | 박재철  | 박진수  | 배기엽 | 성낙호 | 신대철 |
|                   | 안태갑          | 오 진  | 오진자  | 유근우 | 유선식 | 이관웅 |
|                   | 이영희          | 이일길  | 이재용  | 이재정 | 장수창 | 정규숙 |
|                   | 정열모          | 지경수  | 차인수  | 최의수 | 최재은 | 홍운정 |
|                   | 홍주희          | 한길선례 | 크리스리 |     |     |     |
|                   | 합계 : \$4,370 |      |      |     |     |     |
| 미사헌금 : \$2,929.47 |              |      |      |     |     |     |

| 성전헌금                  | 강태홍          | 구자운 | 국세찬 | 김교복  | 김 욱 | 김원모 |
|-----------------------|--------------|-----|-----|------|-----|-----|
|                       | 김일선          | 김정엽 | 김정희 | 민소예  | 박선희 | 박인식 |
|                       | 박재철          | 박진수 | 배기엽 | 성낙호  | 신대철 | 안태갑 |
|                       | 오진자          | 유근우 | 유선식 | 이관웅  | 이영희 | 이재용 |
|                       | 이재정          | 장수창 | 정규숙 | 정열모  | 지경수 | 차인수 |
|                       | 최의수          | 최재은 | 홍주희 | 한길선례 |     |     |
|                       | 합계 : \$3,210 |     |     |      |     |     |
| 감사헌금 : 홍운정, 박기대 & 주귀연 |              |     |     |      |     |     |

## 이 주간의 축일 (8월17일~8월23일)

### ◎ 축하합니다. ◎

- 17일 : 히야친트 증거자, 리베라토 순교자, 에우세비오 교황, 베네딕타 동정녀
- 18일 : 아가피토 소년 순교자, 다제오 주교, 라우로 순교자, 헬레나 황후
- 19일 : 요한 에우데스 사제, 루이 주교, 베르돌프 원장, 나마디아 동정녀
- 20일 : 베르나르도 원장, 사무엘 예언자, 아마톨 증거자, 루치오 순교자
- 21일 : 비오 10세 교황, 파테르노 순교자, 그라시아 동정 순교자
- 22일 : 레지나(여왕이신 동정 마리아), 안투사 순교자, 에텔지타 동정녀, 파브리치아노 순교자
- 23일 : 로사 동정녀, 필립보 증거자, 에우제니오 주교, 자케오 주교, 네온 주교

## 남가주 소식

### ◆ 예수회 송봉모 신부 초청 신앙강좌

- 일시 : 둘째날 강좌 오늘주일(17일) 오후 7시40분~10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본당(2625 S. Vermont Av.)
- 주제 : 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꽃동네 미국진출 10주년 감사미사와 가정성화 피정

- 일시 : 8월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St. Emydius Church (린우드 꽃동네 옆)  
10900 California Av. Lynwood

\* ☎ (951)302-3400 데미콜라 꽃동네

### ◆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회장), 임언기 신부(비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영익 신부(성령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 (213)435-7570

### ◆ 이나시오 영신수련 입문과정

- 일시 : 8월25일(월)~29일(금)
- 주제 :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 인원 및 참가비 : 25명 선착순, \$380(숙식포함)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센터
- 문의 : (323)731-4433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사무실

### ◆ 한국정부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모집

한국의 영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대통령 장학생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talk.mest.ko.kr>

##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행사의 날 |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8월 사목상임위원회 |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소공동체부장<br>차장<br>차장               |     |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br>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br>권병연 리더아 (310)938-3255 |                                             |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남명자 데레사<br>328-0847                                                      | 남명자 데레사 328-0847                            |
|                                  | 2   | 신중철 아브라함<br>619-4343                                                     | 박선화 안나 325-3888<br>8/16(화) 오후 7시            |
|                                  | 3   | 한길선레 스프라스트카<br>782-1025                                                  | 한길선레 스프라스트카 782-1025<br>8/22(금) 오후 8시, 성당   |
|                                  |     | 정종미 클라라<br>373-1237                                                      | 정종미 클라라 373-1237                            |
| 토런스 서<br>김숙희<br>오틀리아<br>782-8549 | 1   | 박정애 데레사<br>618-8499                                                      | 김주량 요한 782-8549<br>8/2(토) 오후 7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톤<br>619-7763                                                     | 이상규 다니엘 542-8365<br>8/12(화) 오후 7시           |
|                                  | 3   | 이호미 엘리사벳<br>543-4953                                                     |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김씨니<br>클라라<br>612-8840  | 1   | 엄영숙 마리아<br>373-5662                                                      | 엄영숙 마리아 373-5662                            |
|                                  | 2   | 박희자 마리아<br>791-3703                                                      | 박희자 마리아 791-3703<br>8/12(화) 10:30am 히코리파크   |
|                                  | 3   | 강은진 켈마<br>214-2290                                                       | 강은진 켈마 214-2290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이복임<br>엘리사벳<br>516-0818 | 1/2 | 박정희 마리아<br>800-3709                                                      | 최미열 클라라 324-0735<br>8/8(금) 오후 7시            |
|                                  | 3   | 대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br>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박혜경<br>레나타<br>808-5005  | 1   | 정정숙 율리아<br>365-4722                                                      | 박혜경 레나타 808-5005<br>8/17(주일) 오전 11시, 샌피드로파크 |
|                                  | 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1/2반 합동 반모임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8360 | 1   | 최길숙 요세피나<br>997-9006                                                     |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br>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김숙희 유소사 544-4807<br>8/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3   | 윤은경 미카엘라<br>265-0856                                                     |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br>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4   | 송기순 엘리사벳<br>265-0495                                                     |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br>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 ◎ 참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구원의 영광을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에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협조하시고 순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성모님을 당신 곁으로 불러올리심으로 우리 신앙인 모두에게 장차 따라올 구원과 부활의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가 잉태 순간부터 구속(救贖)된 분이라는 것을 믿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성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각별합니다.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님은 1838년 12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 가톨릭교회의 주보성인으로 정해 줄 것을 교황님께 청하셨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를 승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수많은 선조들이 모진 박해에도 성모님의 전구를 구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후 광복절과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과 겹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수호성인 이신 성모님께서 보살피신 결과라는 믿음으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며 특별히 광복의 기쁨을 함께 기념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한 마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깊은 신심과 지극한 겸손으로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이를 교류하고 소통시켜 화해와 용서를 통해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세상의 참된 평화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참된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평화를 해치는 위협한 요소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사랑과 정의와 진리,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과 집착에 빠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무질서와 분열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평화의 사도였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도 선으로 악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오직 사랑을 무기로 삼을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선이 악을 정복할 때 사랑이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는 곳에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충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며, 사랑은 역사의 흐름을 선과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이가 하느님 안에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들은 참된 평화를 정치 활동과 가치 판단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평화는 소수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를 건설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쟁과 대립으로는 평화를 건설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평화의 표지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소명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신의 기도에서 언급한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평화와 정의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보여 주신 하느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